

KIND 방글라 협력센터 주간 건설·인프라 동향 보고(9.19)

1. 방글라데시 경제 동향

○ 방글라데시 환율 및 기준금리 추이

Source: <https://www.bb.org.bd/en/index.php/econdata/index>

구 분	내 용	비 고
은행간 환율	110.00 Tk/USD (전주대비 0.50▽)	'23.09.19 기준
기준금리	4% 유지	'23.08월 기준
월평균 시중금리	6.28% (전월대비 0.02▽)	'23.08월 기준

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아직 2023년 9월 금리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

○ 방글라데시 국채 금리 추이(현지화 10년물 8.505%)

▼ 8.505 -0.00 -0.00%

출처: <http://www.worldgovernmentbonds.com/bond-historical-data/bangladesh/10-years/>

Yield changed +0.0 bp during last week, +0.0 bp during last month, +16.0 bp during last year.

Current Yield is close to **1 year maximum value**

Period	Change	Min	Range	Max
1 Week	0.0 bp	8.505 % Sep 12, 2023	No change	8.505 % Sep 19, 2023
1 Month	0.0 bp	8.505 % Aug 19, 2023	No change	8.505 % Sep 19, 2023
6 Months	0.0 bp	8.505 % Mar 19, 2023	No change	8.505 % Sep 19, 2023
1 Year	+16.0 bp	8.210 % Oct 16, 2022		8.510 % Jan 14, 2023

Current Yield: **8.505%**

Last update 19 Sep 2023 2:15 GMT+0

□ 방외환보유액 감소

- 방글라데시의 외환보유액이 8일간 약 14억 7천만 달러 감소.
- 방외환보유액은 231억 8천만 달러(9월 5일 기준)였으며, 8일 뒤인 13일에는 217억 1천만 달러로 감소.

- 외환보유고는 수입대금 증가와 수출 및 예상보다 낮은 해외송금으로 인해 1년 넘게 감소 추세.

□ 11개월 만에 예상보다 낮은 예산 지출

- 정부 재무당국에 따르면 23 회계연도 지난 11개월 동안 정부의 예산 지출은 개발비 지출 부진으로 인해 예상보다 낮은 수준 유지.
- 공식 통계에 따르면 총 수정 추정치의 64%가 지출.

2. 건설·인프라 시장 동향

□ 방가반두 터널 10월 28일 개통

- 차토그램 카르나폴리 강 아래에 있는 '방가반두 셰이크 무집 라흐만 터널'은 공사가 100% 마무리, 10월 28일 개통 예정.
- 터널 총 연장은 카르나폴리 강 아래 3.40km 포함 약 9.092km, 카르나폴리 강 서쪽을 강 동쪽으로 연결하는 740m의 다리와 나란히 4.89km의 진입로 구축.
- 프로젝트 총 비용은 Tk 8,446.64 크로어이며 중국은 Tk 550.05억 제공.

□ 쿨나-몽글라 철도 노선: 공사 지연(3년→15년)

- 몽글라항 연결을 위한 철도 건설(2011년에 3년의 초기 기한을 가지고 시작한 70km 철도 건설)은 현재 8번째 공사연장 예정
- 현재 계획상 2024년 10월 준공이었으나, 철도부 장관 주재 회의에서 사업운영위원회는 사업 완료를 위해 1년을 더 요청하기로 결정
- 물리적 진행률은 97.2%, 재정적 진행률은 6월 기준 88.58% 기록.

□ 공항 제3터미널 : 10월 7일 준공식 준비

- 셰이크 하시나 총리는 10월 7일 공항 제3터미널 1단계 사업을 개시할 예정. 다만, 2024년 말에나 승객들이 터미널을 완전히 활용할 수 있을

것으로 예상. (터미널 운영에 사용되는 장비의 교정 및 준비에 따른 것)

- 터미널이 완전히 개방되면 한번에 37대의 항공기 수용가능 (5,42,000 제곱미터) 터미널 완전 개방시 26개의 탑승교 구축, 이 중 12개의 탑승교가 10월에 개방될 것
- CAAB(항공청)에 따르면 출구를 위한 체크인 카운터는 총 115개(셀프 서비스 체크인 카운터 15개 포함)가 될 것.
- 제3터미널 건물의 총 면적은 23만 제곱미터로 연간 1,200만 명의 승객 수용 가능.

□ Chattogram에 국내 최초 전기 자동차 공장 건설중

- 차토크램에 최초의 전기차(EV) 제조 공장 건설 중(144억 Tk 투자), 투자금 중 79억 Tk는 10개 은행에서 자금 조달, 나머지 자금은 민간 기업에서 조달 예정.
- 방글라데시 자동차 산업 유한회사(BAIL)는 미르사라이의 뱅가반두 셰이크 무지브 실파 나가르(BSMSN)에서 이 프로젝트 시행 중, 내년 3월까지 현지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시장에 출시할 계획.
- 차량본체, 배터리, 모터, 충전기 포함 전기 자동차의 주요 부품 생산 예정.(생산은 전체 투자의 약 75% 차지, 나머지 25%는 인테리어 디자인 수입)

□ 전력에너지광물자원부 : 합리적인 가격의 전원 공급 위한 노력중

- 전력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(Nasrul Hamid), "에너지 정책: 회복력 있는 남아시아를 향한 저렴하고, 신뢰할 수 있는 현대적인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 보장"이라는 제목의 지역 기후 회의에서 "적정 가격으로 단전 없는 전력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향후 15년간 75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"고 언급.
- 장관은 "2041년까지 재생에너지로 24,000MW의 전력을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"며 "10,000MW의 발전용량을 가진 108개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시행 중"이라고 밝힘.

□ 방글라데시, 수입 중고차 의존도 줄여야

- 박영식 방글라데시 주재 한국 대사는 방글라데시가 국내 생산을 장려하는 데 노력할 것을 요청. 이는 또한 오염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중고차의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기도 함.
- 대사는 16일 방가반두 하이테크파크의 공정기술현대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"방글라데시는 수입 중고차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"며 "국산차는 환경에도 좋을 것"이라고 언급.
- 대사는 방글라데시가 생산기반을 확대한다면 방글라데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, 방글라데시에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세제 개선으로 투자환경을 더욱 개선할 것을 강조.

3. 재난상황 및 정치상황

□ 다카, 200개가 넘는 상점이 화재로 소실

- 북다카시 관계자는 9월 14일 새벽 모하마드푸르 크리시 시장을 초토화한 화재로 317개 상점 중 217개 상점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힘. 17개 소방대가 출동, 오전 9시 25분 진압.
- 앞서 4월 4일에도 방가바자르에서 3일 이상 불에 타 시장 전체를 잿더미로 만든 파괴적인 화재가 발생, 남다카시의 보고에 따르면 3,800개 이상의 상점을 태우고 303.05크로어 이상의 피해를 입힌 바 있음.
- 소방청 및 민방위 보고서에 따르면, 올해 8월 전국에서 발생한 1,667건의 화재 사건으로 20명이 다치고 8명이 사망. 전체 화재 사건 중 128건이 다카에서 발생.

□ 정당집회, 10월 초까지 예상

- 다가오는 총선에 앞서 다양한 정치적 양보 요구, 지지층을 동원하기 위해 최소 10월 초까지 전국적인 집회를 열 것으로 예상.

- 9월 18일 현재, 제1야당인 방글라데시 국민당은 9월 19일부터 10월 3일까지 새로운 시위 계획을 발표. 방글라데시 국민당 지도자들은 이전에 현 정부의 사임과 중립적인 과도 정부 하에서 총선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 캠페인을 벌인 바 있음.
- 추가 집회가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음. 유명한 정부 건물, 박물관, 공공 광장, 스포츠 경기장, 모스크, 기자 클럽 및 정당 사무실과 경찰서가 위험지역으로 예상됨.
- 경찰과 시위자, 그리고 경쟁 관계의 정치 진영 구성원 간의 충돌도 배제할 수 없음. 당국은 보안 사고에 대응하여 대량 체포 및 또는 진압봉과 최루탄 등 무력 사용을 할 수 있으며, 시위대는 도로를 따라 행진하거나 차단하여 지역적인 수송 차질을 유발할 수 있어, 이와 관련된 국지적인 비즈니스 중단이 발생할 수 있음.